관급공사 업자-브로커-공직자 '검은 유착'

광주지검 4개월간 수사···공사·납품계약 비리 30명 구속 전현직 군수·구청장·광역의원 등 광범위한 부패 드러나

업자(공사·납품)-브로커-공직자를 잇 는 관공서의 고질적인 유착고리가 검찰 수 사로 드러났다. 업자들이 브로커를 통해 공직자에게 로비하고, 공직자는 부당하게 계약을 해주는 '검은 거래'가 광범위하게 고착화돼 있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는 관공서 공사수주·납품계약과 관련, 지난 해 9월부터 4개월 동안 수사한 결과 총 40 명을 뇌물수수 또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전 · 현직 공직자만 15명에 이르며, 이 가 운데 12명이 구속됐다. 브로커·납품업자 24명 중 18명이 구속 기소됐다.

공직자들의 이력은 화려했다. 군수, 구 청장, 광역의원, 비서실장, 계약팀장, 공공 기관 지사장, 정책자문관 등이다.

노희용(52) 전 광주 동구청장은 공직선 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2015년 7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 받고 석방된 다음날 LED조명등 납품업자 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로 구속됐다.

박희현(72) 전 해남군수는 2013년 6월부 터 2015년 12월까지 관급공사 수주 브로 커로부터 해남군 발주 공사 수주 알선 대 가 명목으로 2회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 위반・알선수재)로 재판(구 속)에 넘겨졌다.

김효남(53) 전남도의원은 2012년 1월부 터 2016년 2월 사이 건설업자로부터 주민 숙원사업 공사수주 알선 명목 등으로 6회 에 걸쳐 194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알선·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조세철(57) 광주시의원은 2014년 11월 께 관급 납품에 대한 특별교부금 배정 대 가 명목으로 5회에 걸쳐 4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용구(63) 광주시 정책자문관과 동생 김용환(57) 광주시장 비서관은 본연의 보 좌 역할을 뛰어넘어 광주시 발주 관급공 사 수주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브로 커로부터 청탁을 받고 브로커가 지정한 업 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광산구청 전 비서실장과 장흥군청 전 비 서실장, 여수시 계약팀장과 전직 계약팀장, 동구청 주무관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 속 또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다.

광주시·전남도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 공직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관급자재 납품업자로부터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각각 1000만원과 1150만원을 건네받은 혐 의(뇌물수수)로 광주도시공사 팀장(2급) 1 명과 전남개발공사 부장(3급) 1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또 발주 관급계약과 관련해 편의제공 등의 명목과 함께 900만원을 받은 혐의(뇌 물수수)로 공공기관 사업소 소장이 구속 됐다.

한국농어촌공사 전 나주지사장도 2013 년 10월 관급자재 납품업자로부터 편의제 공 등의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혐의 (특가법상 뇌물)로 철창 신세를 지고 있다.

각종 청탁 등의 명목으로 중간에서 돈을 받은 브로커들과 사업 편의를 위해 공직자 등에게 뇌물을 건넨 업자들도 대거 적발됐 다. 여기에는 공직자와 지연, 학연으로 얽 혀 있거나 선거를 도운 브로커들이 다수 개입했다.

브로커는 업자의 부탁을 받고 친분이나 당선을 도운 사실을 내세워 계약을 요구했 고 공직자는 이를 들어줬다. 계약이 성사 되면 계약금의 20~40%를 수수료 명목으 로 브로커가 가져가는 일도 마치 정상적인 업무인 것처럼 이뤄졌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기도 했다. 계약 대상은 하수처리 장치·목재데크·LED조명·수중펌프·사 무용가구·설계용역·온열기·자외선살균 기 · 물탱크 등 다양했다.

이 같은 불법 유착은 계약 업무의 공정 성을 크게 훼손했다. 관급공사나 자재 납 품 업체 선정은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입찰 형태로 이뤄졌지만, 뒷거래로 소위 '찍어 준 업체'가 독점했다. 업자는 로비 명목으 로 쓴 돈을 다시 벌어들이려 공사 대금이 나 자재 가격을 올렸고 품질마저 낮추기 때문에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컸다.

노만석 특수부장검사는 "구조적 비리의 부패 고리를 차단해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 립하기 위한 기획수사였다"며 "시장질서 를 교란시키고 사회통합 및 공정성을 저해 하며 결국 그 피해가 국민의 몫으로 귀결 되는 공공분야의 구조적 유착비리를 지속 적으로 단속,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선생님들의 '나쁜 손'

광주지검. 여고생 제자 4명 성추행한 교사 구속

담임을 맡아 가르치던 여고생 제자 들을 추행한 교사가 구속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2일 제자들 을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로 여수의 한 공립학교 교사 김모(61)씨 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등학교 3학년 담 임인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제자 4명을 수차례 껴안고 허리를 감

싸는 등 추행했으며, 손으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담임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했 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검찰에 구 속된 걸로 보아 죄가 가볍지 않다"며 "해임이나 파면 등 행정적인 징계조 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전남경찰, 여대생들 강제 추행·협박한 교수 송치

전남지방경찰청은 강제추행·협박 혐의로 목포대학교 A교수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 일 밝혔다.

30대 후반인 A교수는 지난해 전공 학과 여학생 4~5명을 강제로 추행하 고,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 다. 경찰은 해당 교수가 자신의 혐의

를 강하게 부인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교수가 강의 시간에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 고,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고 주장 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교수는 학교 측 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우울증 엄마가 딸 찔러 생명엔 지장 없어

생후 13개월 된 아이가 할머니집에서 흉 기에 가슴을 찔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화순경찰은 12일 흉기로 딸을 찌른 혐 의(상해)로 엄마인 이모(29)씨를 입건했 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20분께 화순군 동면에 있는 친정집 에서 자신의 딸 가슴에 길이 2cm가량 상처 를 입힌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씨가 사고 직후 남편에게 바로 연락하여 119에 신고해 달라고 했다고 밝 혔다. 경찰조사결과 아이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며,이씨는 평소에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현재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씨의 상태가 회 복되는 대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한영기자 young@



"새해엔 담배 끊어야죠"

12일 오전 광주 북구보건소 금연상담실에서 신년 금연계획을 세운 시민들이 체내 니코틴 농도 를 측정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3억 수뢰 전 경찰 총경 항소심서 징역 5년

광주고법, 1심보다 높게 선고

수출업자로부터 3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총경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 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남지방경 찰청 김모(59) 전 총경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억100만원 (1심 300만원), 추징금 1억원(1심 79만원)

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총경이 받은 뇌물 3억500만원 가운데 1 억500만원을 뇌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뇌물이 아닌 투자금으로 판단했다. 1심에 서는 500만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김 전 총경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 소된 전직 경찰관 출신 수출업자 정모(39) 씨에게는 징역 8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9

년을 선고했다.

 $P_{
m assion~[gg],~}V_{
m ision~[T],}T_{
m ruth~[진리]}$ 로 충만한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김 전 총경은 전남경찰청 간부와 광주의 한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2013~2014년 후배인 정씨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뇌 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수출 입 서류를 허위로 기재, 금융기관에서 100 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아 국외로 빼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3명 항소심 재판 검찰-피고인 공모 여부 놓고 공방 치열

광주고법 비공개로 진행

신안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 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18년 을 선고받은 학부모 등 3명에 대한 항소 심 첫 재판이 12일 광주고법에서 열렸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

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 속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8년 · 13 년·12년을 선고받은 김모(38)·이모

(34) · 박모(49)씨 등 3명에 대한 첫 재판 을 열었다.

법정에서는 범행 공모 여부와 관련, 검찰과 피고인들 간 공방이 일었다. 재 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통신자료에 관한 사실조회와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을 진 행키로 했다.

이날 재판은 사건의 특성상 비공개로 진행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2월23일에 열린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쳐다봤다며 마구잡이 폭행 조직폭력배 경찰서행



○…노래방 엘리베 이터에서 마주친 남성 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을 휘둘러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수도권 지역의 20대 조직폭력배가 경찰서행.

○…12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경 기도 부천지역을 무대로 활동해온 폭력 조직원 양모(27)씨는 지난달 5일 오전 6 시께 광주시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대학생 김

모(20)씨가 자신과 눈을 마주쳤다는 이 유로 얼굴과 온몸을 마구 때려 광대뼈 골절상 등을 입혔다는 것.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용의 자가 광주지역 모 폭력조직원과 함께 있 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추궁해 양씨를 붙잡았는데, 경찰 조사에서 그는 "친구 들과 술을 마시고 혼자 엘리베이터에 탔 는데 어린 친구가 째려보는 듯해 화가 치솟았다"고 범행을 순순히 인정.

/김형호기자khh@kwangju.co.kr

2017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 추가모집

학부 편입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 집 인 원						
			정원내	정 원 외					
		모집학과	일반편입 (3학년)	학사편입 (3학년)	유치원교사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편입학(3학년)				
	인문	신 학 과	0	0					
		국제한국어교원학과	0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0	0					
사범		유아교육과	0		0				
	예능	음 악 학 과	0						
		실용음악학과	0						

※ 음악학과 전공▶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입학문의 ▶ 학부 062)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1. 9(월) ~ 18(수)

• 전 형 일 : 2017. 1. 23(월)

........ 22 22 21 EE 사랑과 감사의 63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대학원 신입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원서접수: 2017. 1. 24(화) ~ 2. 6(월) 전형일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 학 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00	2017. 2. 8(수)오후 2시30분			
		박사	목회학과(D.Min.)	0	2017. 2. 8(수)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0	오전 10시			
			유아교육학과(M.Ed.)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0				
	시원보기대하이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00	0047 0 0(4)			
	사회복지대학원		평생교육학과(M.Ed.)	0	2017. 2. 8(수) 오후 3시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원학과(M.A.)	00	그는 3시			
	0 0 FLII 2 FOI	석사	음악학과(M.A.)	0				
	음악대학원		실용음악학과(M.A.)	0				

신학대학원 편입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 (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자		
3학년	○명 (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자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1. 24**(화) ~ **2. 6**(월)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 형 일 : 2017. 2. 8(수) 오후 2시 30분